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융복합적 함의를 중심으로

박소연, 양소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use time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convergent implications

So-Youn Park, So-Nam Yang
Dep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 가구유형 관련 요인,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을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14년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에, 가계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중학생인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구유형 관련 요인에서는 소년소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에,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에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선생님지지가 없는 경우에, 건강 관련 요인에서는 운동시간이 적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융복합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인터넷 사용, 가구 유형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건강요인, 융복합적 함의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household, social support, health-related factors on adolescent internet use tim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internet using time, and this study used the 2014 10th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by Centers for Disease and Prevention. Results show that as for socio-demographic factors, being male, lower economic status, being middle school student, and having poor academic grade were; as for household factors, youth-led, one-parent, grandparent(s),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were; as for social support factors, the absence of family support, the absence of friend support and the absence teacher support were; and as for health-related factors, less exercise, higher level of stress, and lower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internet using time. Based on these results, convergent implications about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adolescents can use internet appropriately were discussed in the section of conclusion.

Key Words : adolescents, internet use, household factor, social support, health factor, convergent implications

Received 23 July 2015, Revised 31 August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So-Nam Yang(Kyonggi University)

Email: snyang@kg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2014년 현재 인구 대비 91.5%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1]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세계 56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이 인터넷에 대한 높은 접근성 및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은 우리 삶에 상당한 편리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증가와 같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이용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사이버비행이나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부작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14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만10~19세)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29.2%로 전년(25.5%)보다 3.7% 포인트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보다 무려 2.6배 많은 수치이다[3].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들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발달저하 등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중독의 증상을 설명하고 이를 판별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4,5]와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중독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6,7]. 최근에는 도박이나 중독 등과 같이 문제적인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들[8,9,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 유형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으나[11,12],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의 수준과 이로 인한 문제행동,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다[3,13,14]. 또한 자기통제력이 약한 경우,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우울을 경험한 경

우,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 인터넷 중독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17,18,19]. 그리고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은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0,21]. 인터넷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게임시간,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정도, 친구의 수, 부모감독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친구가 적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감독이 적을수록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22,23,24], 부모감독의 영향력은 인터넷 과다사용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25,26].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과다 사용과 중독의 관계, 중독의 과정, 그리고 중독이 심해진 이후의 상황과 극복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인터넷 사용시간 자체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문제적인 인터넷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접근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융복합적 해결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기간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14년 제10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16개 시도의 각각 400개 중·고등학교 1학년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800개교의 74,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72,060명으로 97.2%의 참여율을 보였다.

2.2 측정변수

2.2.1 인터넷 사용시간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시간과 심리·사회적 문제의 정적 관계를 입증하였고[26],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최근 30일 동안 학습목적 이외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2.2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가계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등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하, 중, 상의 세 단위로, 학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업성적은 하, 중, 상의 세단위로 측정하였다.

2.2.3 가구유형 관련 요인

가구유형요인은 소년소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거주시설 가구,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그리고 양부모 가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소년소녀 가구는 성인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부모 가구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연구대상자를 양육하는 가구로, 조손가구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연구대상자로 구성된 가구로 측정하였다. 거주시설 가구는 연구대상자가 현재 보육시설(보육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다문화 가족은 부모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부모 중 한쪽이 북한에서 태어난 경우로 측정하였다. 양부모 가구는 친부모 혹은 양부모의 관계없이 연구대상자가 아버지 또는 양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양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구로 측정하였다.

2.2.4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평상시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지지 요인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선생님지지, 그 밖의 지지, 그리고 지지없음의 5개 유형으로 측정하였다.

2.2.5 건강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 건강관련 요인은 운동, 스트레스 수준, 주

관적 행복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운동은 최근 7일 동안 직접 운동을 한 횟수로 없음,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수준과 주관적 행복감은 하, 중, 상의 세 단위로 측정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tata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터넷 사용시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가구유형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각 독립변수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를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 및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36,470명(50.61%), 여학생이 35,590명(49.39%)으로 남자 청소년이 다소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이 35,040명(48.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23,945명(33.23%), 하 13,075명(18.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중학생은 36,156명(50.17%), 고등학생은 35,904명(49.83%)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서는 상이 26,723명(3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가 25,175명(34.94%), 중이 20,162명(27.98%)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 유형별 분포는 양부모 가구 56,730명(78.98%), 조손가구 6,912명(9.62%), 한부모 가구 6,772명(9.43%), 다문화 가족 666명(0.93%), 소년소녀 가구 373명(0.52%), 거주시설 가구 332명(0.46%), 북한이탈주민 가족 46명(0.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에서는 친구지지가 27,180명(37.72%), 가족지지가 25,604명(35.53%), 지지없음이 16,093명(22.33%), 그 밖의 지지가 1,951명(2.71%), 선생

남지지가 1,232명(1.71%)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관련 요인 중 운동에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한 청소년이 25,198명(34.97%)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2번 운동한 청소년이 20,871명(28.96%), 일주일에 1번 운동한 청소년이 13,093명(18.17%), 일주일에 한번도 하지 않은 청소년이 12,898명(1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중이 30,981명(42.99%)으로 가장 많았고, 상이 26,704명(37.06%), 하가 14,375명(19.95%)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행복감에서는 상이 45,796명(63.55%), 중이 19,908명(27.63%), 하가 6,356명(8.82%)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터넷 사용시간은 최근 30일 동안 하루 평균 2.58±1.99(최소 0시간 - 최대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	Categories	N(%) / Mean ± SD
socio-demographic related factors		
gender	male	36,470(50.61)
	female	35,590(49.39)
economic level	low	13,075(18.14)
	middle	35,040(48.63)
	high	23,945(33.23)
school year	middle school	36,156(50.17)
	high school	35,904(49.83)
academic grade	low	25,175(34.94)
	middle	20,162(27.98)
	high	26,723(37.08)
household related factors		
a child head of household		373(0.52)
one parent household		6,722(9.43)
grand-parent(s) household		6,912(9.62)
residential setting		332(0.46)
multicultural family		666(0.93)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46(0.06)
two-parents household		56,730(78.98)
social support related factors		
family support		25,604(35.53)
friend support		27,180(37.72)
teacher support		1,232(1.71)
other support		1,951(2.71)
none		16,093(22.33)
health related factor		
exercise	none	12,898(17.90)
	1 per week	13,093(18.17)
	2 per week	20,871(28.96)
	>=3 per week	25,198(34.97)
stress	little	14,375(19.95)
	some	30,981(42.99)
	much	26,704(37.06)
subjective happiness	little	6,356(8.82)
	some	19,908(27.63)
	much	45,796(63.55)
dependent variable		
internet use time		2.58 ± 1.98 (range: 0- 10)

3.2 독립변수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 가구유형 관련 요인, 사회적 지지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에서는 성별, 가계의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t=30.07, p<.0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F=348.62, p<.001$),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F=631.38, p<.001$)에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03, p<.001$). 즉 북한 이탈주민 가족의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소년소녀 가구, 거주시설 가구, 다문화 가족,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그리고 양부모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에 따라 인터넷 사용시간의 차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83.07, p<.001$). 즉 사회적지지가 없을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의 지지, 선생님지지, 친구지지, 가족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운동 시간이 적을수록($F=51.22, p<.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F=46.19, p<.001$),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F=198.96, p<.001$)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internet use time by different factors

Variable	Categories	Mean ± SD	t/F test	p-value
socio-demographic related factors				
gender	male	2.84 ± 1.99	t=30.07***	0.0001
	female	2.26 ± 1.91		
economic level	low	3.07 ± 2.16	F=348.62***	0.0001
	middle	2.57 ± 1.93		
	high	2.32 ± 1.89		
school year	middle school	2.58 ± 1.95	t=0.69	0.49
	high school	2.57 ± 1.94		
academic grade	low	3.04 ± 2.15	F=631.38***	0.0001
	middle	2.50 ± 1.86		
	high	2.24 ± 1.82		
household related factors				
a child head of household		3.43 ± 2.62	F=67.03***	0.0001
one parent household		2.93 ± 2.17		
grand-parent(s) household		2.94 ± 2.09		

residential setting	3.18 ± 2.93			
multicultural family	2.99 ± 2.28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4.82 ± 3.78			
two-parents household	2.48 ± 1.91			
social support related factors				
family support	2.30 ± 1.80	F=183.07***	0.0001	
friend support	2.55 ± 1.97			
teacher support	2.64 ± 2.13			
other support	2.81 ± 2.05			
none	2.99 ± 2.14			
health related factors				
exercise	none	2.83 ± 2.20	F=51.22***	0.0001
	1 per wk ²	2.57 ± 1.96		
	2 per wk	2.50 ± 1.88		
	>=3 per wk	2.51 ± 1.93		
stress	little	2.49 ± 1.90	F=46.19***	0.0001
	some	2.51 ± 1.89		
	much	2.70 ± 2.10		
subjective happiness	little	3.09 ± 2.24	F=198.96***	0.0001
	some	2.70 ± 2.03		
	much	2.45 ± 1.90		

*** p<.001

3.3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값)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공차한계가 .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가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위해 운동, 스트레스, 행복감을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운동은 주 3회 이상(1)과 그렇지 않는 경우(0), 스트레스와 행복감은 하와 중(0), 상(1)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에서는 남학생일수록($\beta = -0.14, p < .001$),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beta = -0.06, p < .001$), 중학생인 경우($\beta = -0.14, p < .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beta = -0.04, p < .001$), 가구유형 관련 요인에서는 양부모 가구와 비교하여 소년소녀 가구($\beta = 0.01, p < .05$), 한부모 가구($\beta = 0.04, p < .001$), 조손가구($\beta = 0.04, p < .001$), 다문화 가족($\beta = 0.02, p < .01$), 북한이탈주민 가족($\beta = 0.02, p < .05$)인 경우에, 사회적지지 요인에서는 가족지지($\beta = -0.09, p < .001$), 친구지지($\beta = -0.05, p < .001$), 선생님 지지($\beta = -0.02, p < .001$)가 없는 경우,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운동($\beta = -0.03, p < .001$)을 주 3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beta = 0.03, p < .001$)이 상인 경우, 주관적 행복감($\beta = -0.03, p < .001$)이 낮은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 = 184.49, p < .001$ 로 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예측 요인들의 설명력은 $8.0\% (R^2 = 0.08)$ 로 나타났다.

= -0.03, p<.001)을 주 3회 이상 하지 않는 경우, 스트레스 수준($\beta = 0.03, p < .001$)이 상인 경우, 주관적 행복감($\beta = -0.03, p < .001$)이 낮은 경우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성 검정결과 $F = 184.49, p < .001$ 로 모형은 적합함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의 예측 요인들의 설명력은 $8.0\% (R^2 = 0.08)$ 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of internet use time

Variables ^a	beta	std. error	p-value
constant		0.05	0.001
socio-demographic related factors			
gender	-0.14***	0.02	0.0001
economic level	-0.06***	0.02	0.0001
school year	-0.14***	0.01	0.0001
academic grade	-0.04**	0.02	0.0001
household related factors			
two-parent household		Reference group	
a child head of household	0.01*	0.29	0.035
one-parent household	0.04***	0.04	0.0001
grand-parent(s) household	0.04***	0.03	0.0001
residential setting	0.01	0.28	0.252
multicultural family	0.02**	0.12	0.003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	0.02*	0.89	0.023
social support related factors			
none		Reference group	
family support	-0.09***	0.03	0.0001
friend support	-0.05***	0.03	0.0001
teacher support	-0.02**	0.08	0.0001
other support	-0.01	0.06	0.071
health related factors			
exercise	-0.03***	0.02	0.0001
stress	0.03***	0.02	0.0001
subjective happiness	-0.03***	0.02	0.0001
F=184.49 p<.001, R ² =0.08			

*p<.05, **p<.01, ***p<.001.

^aDummy variables: gender(0=male; 1=female), school year(0=middle school; 1=high school), a child head of household(0=No; 1=Yes), one-parent household(0=No; 1=Yes), grand-parent(s) household(0=No; 1=Yes), residential setting(0=No; 1=Yes), multicultural family(0=No; 1=Yes), North Korean defectors family(0=No; 1=Yes), family support(0=No; 1=Yes), friend support(0=No; 1=Yes), teacher support(0=No; 1=Yes), other support(0=No; 1=Yes), exercise(0: less than 3 times a week, 1: equal or greater than 3 times a week), stress(0: little and some, 1: much), subjective happiness(0: little and some, 1: much)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제10 차(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 가구유형 관련 요인,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 건강 관련 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관련 요인에서 남학생인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중학생인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관련 요인에서는 소년소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인터넷 사용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관련 요인에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선생님지지가 없는 경우에,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운동시간이 적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융복합적 함의를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ross[2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대안을 마련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다양한 방과 후 활동, 가족과의 여행, 여가 생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인터넷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18]. 따라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인터넷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대학 입시 등을 준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에서 학업성적과 인터넷 사용시간의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28]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을 학습 목적 외에 이용한 시간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청소년이 인터넷을 오락용도로 쓰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요즘 청소년에게는 인터넷이 필수적인 생활의 도구로써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실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가구 유형 중 소년소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다문화 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지도감독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역할은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17],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개입이나 올바른 인터넷 사용 지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소녀 가구와 같이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다섯째, 양부모 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청소년이 인터넷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청소년과 부모 간의 문화 및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양식의 문제로 대화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는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 및 언어를 학습하고자 인터넷 사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같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가족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지지의 경우, 고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관계형성을 통해 위기 시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 [29]와 유사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실제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고민을 상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모-자녀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래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 사용시간의 영향력의 경우, 운동시간이 적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운동 등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인터넷 사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목적 외 인터넷 사용시간 항목에는 취미, 여가활동 또는 유의한 정보 습득 등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사용시간을 모두 부정적이라고 전제할 점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한 수준이지만 그 설명력의 수준이 낮은 점에 대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및 경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는 추후 청소년들의 문제적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전략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Ministry of Science, KCT and Future Planning,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A

survey on internet usage, 2015.

- [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TDIGIECO, 2015 Mobile Trends, 2015.
- [3] Ministry of Science, K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2015.
- [4] K. S. Young,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Vol. 9, No. 3, pp.899-902, 1996.
- [5]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 No. 3, pp.237-244, 1998.
- [6] M. Griffiths, Internet addiction: Time to be taken seriously? *Addiction Research & Theory*, Vol. 8, No. 5, pp.413-418, 2000.
- [7] N. A. Shapira, M. C. Lessig, T. D. Goldsmith, S. T. Szabo, M. Lazortiz, M. S. Gold, D. J. Stein, Problematic internet use: Proposed classification and diagnostic criteria. *Depression and Anxiety*, Vol. 17, No. 4, pp.207-216, 2003.
- [8] C. Chou, L. Condron, J. C. Belland, A review of the research on internet addic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17, No. 4, pp.363-388, 2005.
- [9] R. S. Tokunaga, S. A. Rains, An evaluation of two characterizatio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time spent using the internet, and psychosocial proble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36, No. 4, pp.512-545, 2010.
- [10] K. S. Young, CBT-IA: The first treatment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Vol. 25, No. 4, pp.304-312, 2011.
- [11] Y. N. Cho, S. H. Park, Ethnography research on the present stat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us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19, No. 2, pp.151-177, 2003.
- [12] J. S. Hwang, D. K. Cho, A study on a model of internet uses in Korea. *Korean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 10, No. 2, pp.75-97, 2003.
- [13] J. Y. Park, H.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 time of internet use and disposition of internet addiction: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disciplin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1, pp.25-46, 2013.
- [14] D. M. Yeum, S. J. Kim, S. D. Lee, A study of the effect of adolescents' overuse of internet on their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Studies on Korean Youth, Vol. 75, pp.159-183, 2014.
- [15] J. A. Ryu, K. W. Kim,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Korean Youth Counselling, Vol. 12, No. 1, pp. 65-80, 2004.
- [16] S. J. Lee, H. M. Kim, Factors affecting on internet addiction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3, No. 2, pp. 275-303, 2009.
- [17] H. Park, The factors affecting on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and how to deal with it-Focusing on ecosystem theor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5, No. 8, pp. 193-200, 2010.
- [18] S. Y. Park, H. J. Lee,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n youth,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pp.291-299, 2013.
- [19] T. Bax, Internet addiction in China: The battle for the hearts and minds of youth. Deviant Behavior, Vol. 35, No. 9, pp.687-702, 2014.
- [20] Y. S. Kim, B. E. Kim, I. S. Park, S. J. Lee, K. H. Kwon, J. Park, The rel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suicide intention · attempt of adolescent.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Vol. 19, pp.1-22, 2012.
- [21] K. S. Ko, J. S. Le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5, pp.131-156, 2013.
- [22] K. H. Lee, K. H. Ryu,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rnet overuse of adolescents: An analysis by gender, school grades and school system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6, No. 60, pp.71-87, 2011.
- [23] Y. J. Lee, A study on parent-children relation influences on internet excess utility of adolescent in Digit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9, No. 6, pp.101-111, 2011.
- [24] J. W. Hwang, K. H. Kim, Adolescents' the internet use time reduction process and its predicting factors through self-reg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3, pp. 2135-2157, 2012.
- [25] J. H. Son, E. R. S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 computer overuse, and internet related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8. No. 1, pp.135-162, 2007.
- [26] J. H. Kim, K. S. Kim,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2, pp.236-268, 2006.
- [27] E. F. Gross, Adolescent internet use: What we expect, what teens repor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pp. 633-649, 2004.
- [28] B. Kim, Y. Kim, Internet use and its relationship to physical fit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1, No. 1, pp.111-123, 2004.
- [29] Y. G. Lee, A. R. M. Kim, J. I. Ki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adolescent internet use.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2, No. 3, pp.231-259, 2011.

박 소 연(Park, So Youn)



- 1996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과 (학사)
- 1999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0년 10월 : New York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012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중독문제, 건강불평등
- E-Mail : spark831@gmail.com

양 소 남(Yang, So Nam)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05년 7월 :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문제, 사회복지실천
- E-Mail : snyang@kgu.ac.kr